**[보도자료]**

**9월15일, 대한민국 대정전의 날**

**전기를 지배하면, 세상을 통제한다**

**- 원전 사고 소재 스릴러 웹소설 <블랙아웃> 공개**

웹소설웹툰 기획사 팩트스토리는 오는 29일 0시 원전 사고를 소재로한 미스터리 웹소설 <블랙아웃>을 카카오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영화 <히말라야>의 시나리오를 쓴 수오(필명)작가의 작품이다.

이 작품은 원전 사고와 이를 은폐하려는 ‘원전 마피아’를 소재로 삼았다. ‘하인리히 법칙이 사실이라면?’이라는 질문이 작품의 출발점이 되었다. ‘하인리히 법칙’이란 대형사고 발생 전에 반드시 경미한 사고와 징후들이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한국에서 원자로의 노심이 손상되는 중대사고는 없었으나, 2017년 벌어진 냉각재 펌프 중단 사고 등 원전 도입이후 지금까지 여러 건의 중단 사고가 발생했다. 원전안전 운영 정보 시스템을 보면, 2015년부터 현재까지 모두 27건의 원전 사고 및 고장이 발생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원자력을 소재로 한 스토리가 국내외에서 꾸준히 제작되고 있다.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다룬 미국 HBO 드라마 <체르노빌>이 지난해 국내에 공개되어 주목받았다. 2016년에는 원전 소재 영화 <판도라>가 개봉했다.

<블랙아웃>은 몇가지 점에서 원자력을 소재로 한 다른 스토리와 차별점을 갖고있다. 첫째 원전 사후처리충당금 등 현실에 실존하는 원전 관련 정책과 기구가 매력적인 방식으로 설정에 녹아들었다. 수오 작가 특유의 이런 치밀한 설정은 독자의 몰입도를 크게 높인다. 둘째 영화 시나리오 작가 특유의 속도감과 장면 묘사력이 도드라진다. 영화처럼 씬과 씬이 이어지는 웹소설의 구성은 ‘읽는 웹소설’이 아니라 ‘보는 웹소설’이 되도록 한다.

수오 작가는 “고대에 개기일식과 관련한 지식을 독점한 제사장들이 백성 위에 군림한 것처럼 원자력에 대한 지식과 기술을 독점한 집단이 있다”며 “대형 원전사고를 막는 것은 국민의 관심이며, 이 작품이 이를 위한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란다”고 기획취지를 밝혔다.

한편 수오 작가의 <블랙아웃>은 5월29일 자정(0시)부터 온라인 콘텐츠 플랫폼 카카오페이지에서 감상할 수 있다.

 (작품링크: <https://page.kakao.com/home?seriesId=55044431>

또는 애플·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페이지’ 어플 다운로드→‘블랙아웃’ 검색)

**저자 수오**

장르를 넘나드는 스토리텔러다. 영화 <히말라야>(황정민 주연)의 시나리오를 썼고 다수의 영화 시나리오 각본, 각색에 참여했다. 대중이 공감할 수 있는 매력적인 스토리의 힘을 믿는다. 누군가에게는 모든 것을 건 도전이었을 전문직, 실화 소재에 애착을 가진다. 웹소설 및 웹툰 스토리로 작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대한민국 스토리공모대전, NHN게임문학상 등을 수상했고, 영화진흥위원회 시나리오 공모대전, 방송영상컨텐츠 제작지원 등에 선정된 바 있다. 소설 <데블스쿨>이 23회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필름마켓 ‘E-IP피칭’ 웹컨텐츠에 선정되었고 이 작품으로 E-IP피칭 관객상을 수상했다. 탈세 소재 소설 <무임승차>로 20회 부산국제영화제 아시아 필름마켓 ‘북투필름’에 선정됐다.

**펴낸곳 팩트스토리**

팩트스토리는 전문직, 실화소재 웹소설·웹툰 및 논픽션 전문 기획사다. 17년 12월 설립 이후 현재까지 모두 6편의 웹소설 및 논픽션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2편의 웹소설과 관련해 영화·드라마 판권 계약을 체결했다. 영화 <1987>의 김경찬 시나리오 작가 등 다수의 영화사, 영화 작가와 실화 공동취재 중이다.

☞팩트스토리 작품 라인업

<http://factstory.kr/category/real_story/>

|  |
| --- |
| * **보도자료 문의: 팩트스토리**

고나무 대표 010-7446-1024 | dokko@factstory.kr |